이간질 당하고 사랑인줄 안다

(에스라 5:1~17)

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3. 그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간질 당하고 사랑인줄 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간질 당하고 사랑인줄 안다'

마태복음 10장 34~37절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밀착되고 화목해야 되는 가족관계를 예수님께서 이간질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간질은 이간(離間)이라는 말의 뜻대로 간격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가장 가깝고 밀착되고 화목해야 할 가족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간에 밀착된 상태는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인간의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학생이 공부와는 멀어지고 게임이나 스마트폰과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사이가 멀어졌거나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

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마음은 사업과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제3자인 사업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밀착되어야만 하는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마귀가 이간질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족 사이를 이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이미 이간질 당한 상태임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간당한 상태로 하나님의 계획안에 없는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면 부부사이나 자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나 삶에 주어진 사명들도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에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만 벌어지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세상 것들과 밀착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에는 세상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도 성숙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복지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만삭인 임산부 딸을 친정엄마가 끌어안고 싶어도 배가 방해 되어서 끌어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 것(배우자 자식 부모 일 승진 직장 등)과 밀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배가 세상으로 만삭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껴안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벌어진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 복음이 무효화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간격을 좁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간격을 좁히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복음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지고 작동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재건이 중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16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프라테스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 되었으나 다시 시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그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에게 이러한 내막을 적은 서신을 보내서 과연 그러한 명령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학개나 스가랴가 백성들을 고무해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을 왜 예언이라고 해야 했을까요?

이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개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주자 그것을 들은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본래 기능은 듣는 사람의 마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간격을 측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벌어진 간격을 좁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예언의 기능은 현재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리는 기능을 가졌던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먹고 마시고 취직하는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일을 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은 만삭 여인의 배처럼 불러오며 하나님과의 간격은 자꾸만 멀어졌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좁혀야 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성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거리를 좁히려고 할 때에 성전과 번제단의 의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보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외에 돈 자식 직장 취직 건강 등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어진 것이 죄악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전의 평면도를 마음에 대입해보며, 내 마음의 지성소에 인격적이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밀착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들어온 나의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져야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에 세상이 잔뜩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늘만큼이나 멀어졌는데도 좁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예언은 곧 하나님과 내 마음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대선출마를 하는 후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덟 명이나 나왔고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대선주자가 있지만 지지율이 0.1~0.6%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집사람에게 '나는 오늘의 번제 말씀을 전하기에 바쁘니까 대통령에 출마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최순실도 나라를 좌지우지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못 다스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으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자리와의 간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입에 담아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실제 대통령과의 멀고 먼 간격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만 이 간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실제 대통령자리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자리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너무나 멉니다. 이때에 반드시 그 간격을 좁히고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실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십자가 복음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재건이 16년이나 중단 된 이유는 결국 성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언을 듣고서야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그 완성인 십자가가 왜 내게서 생활화되어야만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도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간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재건을 미루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싶다는 소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선민이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의 간격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고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성전뿐이었습니다.
살다보면 마음에는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 것들이 채워집니다. 마음에 담긴다는 것은 곧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좋아하고 열망하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담길 때마다 번제단에서 죽으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상번제의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린양이 상번제로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것이 담긴 나의 마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바라볼 때에도 자식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과 벌어지는 행동임을 깨닫고 그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완성인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도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1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하기를 강조했는데 왜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십자가 생활화가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마치 지금 정치권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대통령이라는 실제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지율이라는 거리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 간격을 없애려는 방법을 찾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 보낼 때에 내 마음의 공백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과 만족이 성취 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건강 자녀 돈 승진 취직 권력 명예 인기 등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이간질에 이간당해 버린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이간질을 당한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밀착되어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죄의 성질은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완성인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하는 것이고, 세상을 담은 내가 죽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 담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집에 오면 또한 가정이 마음에 담기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야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생활화에 주력하는 동안에 직장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담음으로서 생겨나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애고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신 유일한 존재는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따라갈 때에만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내 마음의 밀착상태에 주력함으로서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